

기획특집

한·중 FTA 추진, 축산업계 대응방향 모색

Focus

1. 가축분뇨법 논란
2. 한우할인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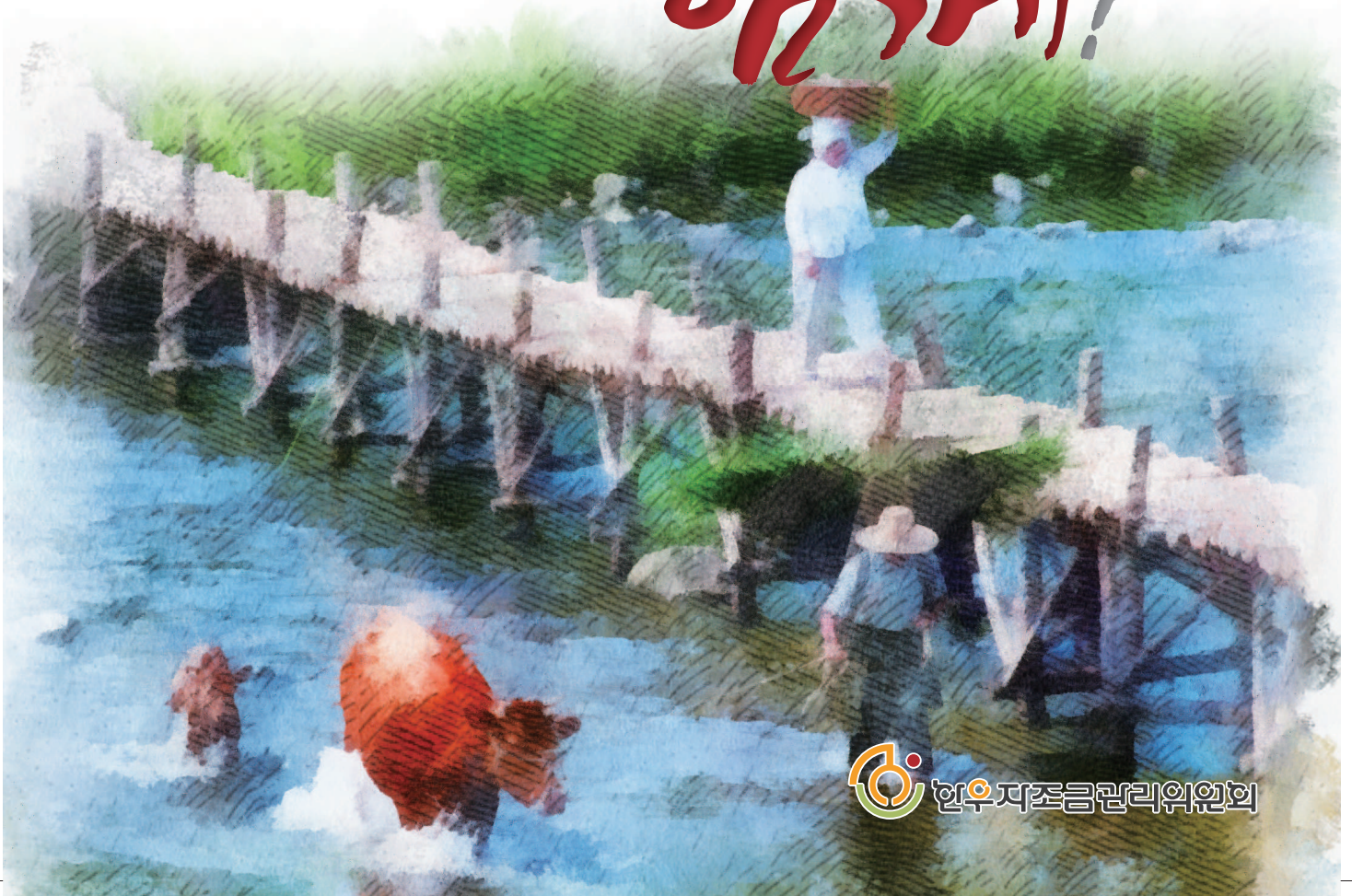
파워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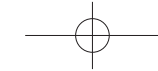
“한우산업 안정화 위해 근본적 대책과 구체적 해결방법을 주요안건으로 논의 하겠다”

새누리당 간사 김재원 의원

한우와
함께!

한우는 항상 우리 농가의 옆을 말 없이 지켜주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친구 한우와 함께 가는 길 이기에 외롭지 않습니다





Contents July 2012

- 02~04 기획특집 1
한·중 FTA 추진 축산업계 대응방향 모색
- 05 Information
자조금관리위원회
- 06~07 Focus 1
가축분뇨법 논란
- 08 파워인터뷰
새누리당 간사 김재원 의원
- 09 Information
CF 및 PPL 안내
- 10~11 Focus 2
한우할인판매
- 12~13 Information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 14 한우전망
- 15 Information
애독자 코너

국내 농축산업 최대 위기 '한·중FTA'

지난 5월 2일 한·중 FTA 협상개시가 선언되어 5월 14일 1차 협상이 진행됐고, 지난 3~5일 제주에서 2차 협상이 진행됐다. 한·중 FTA가 무역규모는 증대시키겠지만 농축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중 FTA 발효 10년뒤에는 2조3천 억원에 달하는 농업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는데, 농민단체들은 이보다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다며, 한·중 FTA 중단을 촉구하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1. 중국의 축산물 수급현황

중국 내 소 사육두수는 2010년 기준 10,626만두로 육우 63.4%, 역용우 23.2%, 젖소 13.4%를 차지하며 연간 쇠고기 생산량은 653.1만톤에 달한다.

중국 내 쇠고기 소비량(2010년 기준)은 539만1천톤으로 돼지고기(4,831만여톤)에 비해 소비량은 높지 않으나 매년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0년도 중국의 쇠고기 수출량은 36,765톤으로 수입량(32,883톤)보다 많았다.

2.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농업 생산구조가 유사하며, 광대한 국토와 다양한 기후가 갖춰져 있다. 한·중 FTA 체결로 관세 철폐 시 EU, 미국과의 FTA에 비해 농업부문의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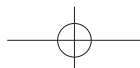
또한 중국내 생산이 없거나 국내 공급이 부족해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수요가 있을 경우 중국 내에서 생산하여 수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가격 경쟁력이 낮은 쇠고기와 돼지고기도 장기적으로 검역상 수입규제가 해제된다면 언제든지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국내산 축산물의 경우 중국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우가격 안정, 자율암소감축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하반기(명절이후) 한우암소와 거세우의 출하량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수출하는 곧 가격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계획성 있는 출하계획으로 홍수출하를 예방해야 가격하락의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작은 이익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위기극복을 위해 한우농가의 자율암소감축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중FTA 실무자들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일 중남도의회에서 김용필 의원이 한·중 FTA를 반대한다는 발언을 했다.

3. 한·중 FTA 대응방향

● 체결가능품목부터 확대

여러 여건으로 미뤄봤을 때 농축산분야의 경우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 등으로 구분, 양허에서 제외하고 체결가능분야부터 관세를 철폐시켜 점차 확대시키는 방식의 FTA가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축산업계의 의견이다. 더불어 중국의 축산물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사전 연구 및 검역제도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쇠고기 등의 신선육 수입을 위해 수입위험평가단계를 거쳐야 하고, 수입위생조건 협의가 필요하다. 수입국의 식품안전 및 방역 위생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수입위험평가 결과 수입허용 결정 시 양국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협의해야 한다.

● 지역화로 대응하는 중국

지금의 검역체계상 중국산 쇠고기 수입은 불가능하다. 구제역 상시 발생으로 인해 중국산 쇠고기는 전면 수입금지 상태로 멸균 처리된 쇠고기 가공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다. 이에 중국은 FTA협상 시 검역수준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중국은 뉴질랜드와 FTA체결 시 동식물 검역과 관련, 위해성 분석제도와 동식물 질병 '지역화' 개념을 도입할 것을 이행약속에 포함시켰다. '지역화'는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 검역 협정에서 처음으로 개념이 도입됐다. 동물전염병의 지역화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동물위생관리 유형으로 한 국가를 기준으로 질병에 감염된 상태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지역의 특성과 관련해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광대한 국토를 가지고 있는 중국은 나라전체를 통제하기 어려워 1998년 법정동물전염병 무발생지역을 구축했다. 이후 동물전염병 지역화 관리를 정부차원에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 또한 자국의 검역규정을 개정하고 지역화 개념을 포함시키고 있는 추세다.

이에 한·중 FTA협상 시 지역화 개념에 대한 적절한 합의도출이 국내 축산업에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이력추적제도와 동물복지제도 등을 협상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야한다.

〈표〉한·중 쇠고기 가격 비교

	한국		중국		비고
	2000년	2009년	2000년	2009년	
소 사육두수		292.2 만두		10,626 만두	2010년 기준(외교통상부)
쇠고기 생산량		18.6 만톤		653.1 만톤	
생산비(비육우 1kg 기준)	4,330원	8,970원	564원	2,186원	중국가격은 북경시 소재 신발지도매시장 가격
도매가(1kg 기준)	9,879원		4,495원		2010~2011년 평균

● 농축산업 말살, 축산업계 강력반발

지난 3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3만명의 농축수산인이 집결, 한·중 FTA중단 집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서 농민들은 식량 자급률 붕괴, 중국산 식품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한·중 FTA의 원천 무효 및 완전 폐기를 주장했다.

이미 체결된 한·미, 한·EU FTA로 축산 분야 피해가 막대한 상황에서 한·중 FTA로 더 이상의 피해를 입는다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 4일에는 한·중 FTA 2차협상이 진행되는 제주도로 장소를 옮겨 집회를 이어갔다.

제주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제주도내 농민단체들과 함께 제주컨벤션센터에서 한·중 FTA중단 국민결의 대회를 열어 협상이 진행되는 롯데호텔까지 가두시위를 펼쳤다. 협상 마지막 날인 5일에도 협상장 인근에서 집회를 벌이며 한·중 FTA에 대한 농축산인들의 강력한 반대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3일 서울시청광장에서 3만명의 농축산인들이 한·중 FTA 반대집회를 진행했다.



▲지난 4~5일, 한·중 FTA 2차 협상을 진행하는 제주에서도 농축산인들은 한·중 FTA 종단을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펼쳤다.



인터뷰 | “국민전체 먹거리 문제인 한·중 FTA, 신중해야 한다”



임용현 한우협회전북도지회장

단순한 농축산분야만의 일은 아니라고 본다.

사회 전반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사안이다. 그 가운데 농축수산 등 1차 산업의 경우 매우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의 경우 아직 당장 대규모 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보긴 어렵지만 중국도 선진국형으로 발전하게 되면 악성 가축질병 문제 등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했을 때 대한민국의 축산은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국민 모두의 먹거리 문제로 장기적으로는 식량안보가 걸려있다. 단순히 우리 농업만의 문제로 인식하기 말아주길 바란다.

한우자조금, 소값안정화에 중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개최, 한우가격 지지 위한 신규사업 추진한다

지난 6월 28일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가 대전에서 개최해 소값안정화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관리위원회는 한우가격안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우 암소 두수 줄이기, 수입육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며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발생에 따른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고, 긴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결의했다.

한우가격안정화대책 지원

한우자조금은 작년 소값안정화를 위하여 총 92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830억원, 총 2만두분의 추진실적을 올렸다. 이에 올해도 소값안정화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총 208억원의 예산으로 암소 6만두 할인행사와 금요일은 한우먹는날, 자가도축형 판매장 지원, 시도단위 소비촉진 행사 등을 지원한다.

김선아를 광고모델로 발탁, '알면 알수록 한우'라는 컨셉으로 7월부터 TV, 라디오 광고를 진행하고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방송 제작협찬도 진행한다. 또한 현재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산물 적체를 해소하고자 사골, 꼬리, 잡뼈 등으로 구성된 한우보신세트를 홈쇼핑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그리고 농가의 기술향상을 위해 한우농가 해외연수, 국제학술대회 개최, 한우 암소개량농가 우수사례 발굴 등을 진행하며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 타 축종의 자조금과 함께 책자 및 홍보리플렛을 제작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우 홍보 만화를 제작한다.

자조금 조성규정 개정안

한우의 브루셀라 발생에 따른 권고도축개체에 대해선 자조금납부를 면제기로 했다.

브루셀라로 인한 권고도축개체 중 150kg미만인 개체에 대해선 별도의 협의없이 자조금납부를 면제토록하는 자조금 조성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정개정안은 브루셀라 발생시 보상금이 100%에서 80%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한우농가의 피해가 크고 동거축에 대한 권고도태 시 도체중량 150kg 미만 개체의 경우 농가의 수취금액이 도축비용에도 못미치는 터라 브루셀라로 인한 농가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논의됐다. 따라서 소 브루셀라 판정에 따라 도체중량 150kg 미만인 개체를 도축한 농가는 도태권고서 및 도체중량 증빙자료를 한우자조금사무국에 제출하면 자조금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축산물처리협회가 자조금의 기한내 징수와 거출률 100%를 위해 노력한다는 조건으로 징수수수료를 현행 5%에서 7%로 조건부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도축장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자조금 거출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징수수료 7% 중 2%는 도축장발전기금으로 축산물처리협회로 지급되게 된다.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변경

이밖에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촉진을 위해 신규사업을 진행하거나, 기존사업 변경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우선 시군 지역 소비홍보사업도 기존 50회에서 100회로 증가했다. 또한 16년만에 부활한 전국한우경진대회의 행사비 일부분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날 회의에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강우 위원을 선출했으며, 권위 관리위원(전남)은 선출하지 않고 24명의 관리위원으로 올해를 이끌어갈 방침이다.

가축분뇨법 개정 입법 예고 논란

환경부, '환경오염 발생 최소화, 축산업 경쟁력 향상 계기 마련된다'
 축산단체, '4대강 오염원인을 축산업으로 책임전가, 축산업 말살정책!'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리를 공장폐수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3일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대책'을 발표, 다음날 보도자료를 배포한 후 뒤이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축산단체는 "정부는 축산업으로 인해 4대강이 오염됐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국내 축산업 죽이기'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 27일 마사회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축산분뇨법 공청회 자리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해 공청회를 무기한 연기시켰으며, 지난 6일 홍문표의원이 개최한 '가축분뇨법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가축분뇨법에 대해 정책간담회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가축분뇨법 주요 쟁점사항

● '무허가 축사 양성화 특별조치법' 요구

환경부는 수질 및 생활환경 등의 주요 오염원이며, 악성 가축전염병 취약지역으로 무허가, 미신고 가축분뇨배출 시설 및 처리시설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 등의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신설했으며, 사용중지 처분에 갈음할 경우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용역(2011.9)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면적은 한우 25.6%, 낙농 42.6%, 육계 41.6%, 오리 56.1%로 나타났으며 조사된 전체 축사면적 1,808만㎡(5,469천평)중 무허가 축사면적은 551만㎡(1,667천평)으로 전체축사면적 대비 무허가 축사 면적 비율이 30.4%로 보고됐다. 이에 축산단체는 일방적인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 행정조치 시 축산업 붕괴가 우려되므로 92년도에 사례가 있던 무허가 축사 양성화 특별조치법 시행을 요구했다. 또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철폐, 축산업등록제에 가축사육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축분뇨법 상 처리 허가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대폭으로 강화하는데 특히 방류수 수질기준 중 부영양화 유발물질인 질소, 인의 기준을 기존 2배에서 3.4배까지 3년간의 유예기간동안 점진적으로 강화코자 한다. 질소, 인의 관리는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공정으로써, 축산농가는 현행 850ppm 규제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50ppm으로 개정 시 처리공정에 막대한 재투자가 불가피하고, 전문관리인 배치 등 사실상 정화방류를 전면 중단시키는 것과 같다. 이에 축산단체는 농가의 추가부담을 고려해 현재 수준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며, 사전대책 마련과 2020년까지 단계적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 가축사육제한구역 대상지역 확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대상에 주거밀집지역 및 상수원 지역 이외, 과밀사육지역을 추가했다. 시·군별 환경부 하 및 농경지의 양분실태 등이 과다하여 적정 사육두수의 일정규모 이상 초과지역을 과밀사육지역으로 고시한 것이다. 이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로 축산업 신규



▲ 지난 6월 27일 마사회에서 축산단체들은 가축분뇨법 개정 반대기 자회견을 가진 후 공청회를 무기한 연기시켰다.

투자 제한은 물론 기존 축산농가는 증·개축이 제한되어 축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또한 지난해 환경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 시달에 따라 지자체 별로 무분별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 재정이 남발한 사례가 있어 축산단체는 과밀사육지역에 대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추가 지정을 반대하며, 주거밀집지역의 정의를 환경부와 농림수산물부가 협의한 후 법에 명확히 명시하여 법률해석 남용 방지를 촉구했다.

● 퇴비·액비의 검사방법 등 기준 마련

축산분뇨법을 통해 농가 등 자원화시설에서 생산하는 퇴·액비가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비료관리법에 따른 퇴·액비의 검사방법,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하며, 퇴·액비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행위에 준하는 벌칙조항을 적용하고자 한다. 비료관리법 상 퇴비기준은 판매상품에 적용하는 기준으로써 수분 55%이하, 염분 2%이하, 구리 360mg/kg, 아연 900mg/kg이하, 부숙도 적합, 대장균, 살모넬라 불검출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소는 염분초과가 우려되며 가축사육 시 발생하는 퇴·액비를 상품의 규격 성분으로 규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축산단체는 비료관리법 상 1.5톤 이하 판매 시 또는 무상제공 시 법 적용 예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법을 통해 비료관리법을 준수하게 만드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 환경에 위해하지 않은 수준에서 별도의 퇴·액비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지난 6월 가축분뇨법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됐다.

●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주체를 지역농협으로 단계적 전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퇴비화 시설 및 바이오가스시설을 지자체 이외 지역농협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며 2020년까지 30개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민간업체에 비해 탄력적 경영이 불가능하며, 퇴비업체가 꾸준히 증가될 경우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다. 현재 축협운영 14개 퇴비 사업장의 경우 작년기준으로 7개소가 최소 17백~260백만원까지 적자를 보고 있으며 올해 논산축협, 수원축협, 안동농협, 영주농협이 시범사업 조합으로 선정됐으나 진행상황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축산단체는 적자 발생 시 운영비 보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수익성 담보를 위해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판매토록 하는 근거조항 마련을 요구했다.

● 가축분뇨 생활하수 채집관거 직접연결 방안 검토

가축분뇨를 하수처리장에 유입하려면 생활하수 유입농도 또는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준으로 자체처리 후 유입해야 하는데 이는 실현가능성이 낮아 환경부는 향후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여 농가에서 전처리 후 공공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축산단체는 최종처리를 농가가 아닌 지자체가 담당해야 하며, 막대한 설치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가축분뇨 생활하수 채집관거 직접 연결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우산업 안정화 위해 근본적 대책 과 구체적 해결방 법을 주요안건으 로 논의 하겠다.



▲김재원 의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경북 군위 · 의성 · 청송)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한우농가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 농해수위 새
누리당 간사로서 임하는 각오는?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한·미, 한·중 FTA 대책, 농협 신·경
분리 후속 대책 등 그동안 미루어온 산적한 현안들이 있다. 특히 한우
농가들이 주목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안들을
해결할 때 여야간 각자의 입장에 따른 정략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
라, 농축산인의 이익을 우선하되 아울러 전체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
는 판단을 하는 상임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가격하락으로 한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정적으로 한우 사육에
전념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한우 송아지 가격이 100만 원선까지 떨어졌던 연초의 상황에서는 벗어
났지만 아직까지 예년의 가격이나 적정 가격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
는 상황이다. 한우농가들의 걱정과 한숨 소리가 바로 곁에서 들리는 것
같아 송구스런 마음뿐이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이러한 한우 가격파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본적
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우 수요 확대, 적정 사육 두수 유지, 사료가격 안정,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이 그 핵심이다.

지금 당장 위에서 언급한 핵심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19대
임기동안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주요 안건으로 논의해 한우농가들이 만
족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미국, EU에 이어 한·중 FTA까지 추진하며 농가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
책이 나오지 않아 농가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개방을 피할 수 없다면 한
우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연이어 체결되고 있는 FTA 때문에 농가들의 근심이 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수출이 중심인 우리나라 경제구조 상 FTA 체결은 국가경제 전체를 고려
할 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농업업 부분이 갖는 특수
성은 분명히 고려되어야 하고 FTA 협상 과정이나 후속 대책에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중 FTA에서도 양허제외, 예외적 취급 등 농
어업 민감성 보호방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한우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한우농가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브랜드 출하 확대, 1등급 이상 출현
율 제고를 위한 한우 품종개량 강화, 시설 현대화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
충 등이 구체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한우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한우농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들을 마
련하는데 노력하겠다.



쇠고기가 아닙니다. ‘한우입니다’

한우모델로 김선아 발탁, 이번달부터 CF 방영



한우자조금은 이번달부터 ‘알면 알수록 한우’라는 주제로 TV, 라디오 광고를 활발하게 진행한다. 최고 엘리트 여성을 뜻하는 신조어인 ‘슈퍼알파걸’이라는 이미지로 드라마에 출연 중인 탤런트 김선아를 한우광고모델로 발탁해 이번 달부터 활발하게 한우CF를 방영한다.

이번 CF는 한우의 120가지 부위에 따른 맛과 건강을 주제로, 몸보신이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한우우족탕, 이유식이 필요한 아기에게는 안심야채죽, 밤샘공부로 지친 수험생에게 꽃등심구이, 활력이 필요한 직장인에게 한우육회, 건강이 필요한 우리 모두에게 한우불고기를 먹자는 내용이다. 한편 케이블용과 공중파용을 별도로 제작하여 방영할 예정으로 케이블은 ‘쇠고기가 아닙니다. 한우입니다’라는 주제로 방영한다.

PPL 안내



06.25 KBS2 굿모닝 대한민국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06.27 KBS2 여유만만
올여름 보양식으로 색다른 한우요리를 소개한다.



07.03 SBS 생활경제
자조금사업의 일환인 사랑의 한우국밥 나눔행사를 소개한다.



07.05 MBC 아이두아이두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게 기운차리자며 한우를 먹는다.



07.08 SBS 도전1000곡
아이돌 가수가 부르는 한우송을 통해 한우의 다양한 부위를 소개한다.



07.15 MBC 무작정패밀리
가족들이 야외에서 한우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최대규모의 한우소비촉진행사로 소값 잡는다

대형 할인매장부터 소셜커머스까지 다양한 유통업체 참여

올 하반기 한우 출하마릿수 증가와 대체육인 돼지고기·닭고기 공급 과잉으로 산지 소값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우자조금은 우선 올해 확보한 예산 중 208억원을 소값 안정을 위해 사용키로 결정, 대대적인 한우고기 소비촉진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대규모 소비촉진행사 진행



한우자조금과 한우협회는 유통업체와 매년 여름 개최하는 한우소비촉진행사를 올해 역대 최대규모로 진행한다. 올해는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온라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까지 참여한다. 역대 최다인 11개 유통업체 1,274개 점포가 이번주부터 8월말까지 등심, 양지, 국거리 등 한우의 인기 부위와 부산물 등을 30~50% 할인한다. 업체 별로 행사기간과 할인 항목은 다르다.

백화점 가운데서는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AK플라자가 참여한다. 농협유통,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슈퍼, GS슈퍼

마켓 등도 행사를 벌인다. 이밖에 인터넷쇼핑몰인 G마켓, 옥션, 11번가와 티켓몬스터, 쿠팡, 그루폰 등 소셜커머스로 '한우 반값 데이', '한우자유이용권'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강성기 관리위원장은 "한우가 너무 많아져 가격이 크게 떨어진 데다 사료값까지 올라 한우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우 소비를 유도해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한우 농가도 돕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농협, 한달간 최대 50% 한우암소할인판매



여름철 한우고기 소비확대를 위해 전국 1,000여개 농협매장을 통해 한달간(7.19~8.19) 대대적인 할인판매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할인행사는 불고기용 한우고기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인 14,200원(kg)에 판매한다. 또한 국거리용 및 구이용도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해 한우소비촉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7월 27일부터 전국의 1,000여개 농협매장에서 할인판매하며 농협중앙회 홈페이지(www.nonghyup.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다가오는 추석명절에는 한우고기로 만든 선물세트를 20만개 판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와 한우자조금, 농협중앙회는 추석한우선물세트로 정육세트, 보신세트, 꼬리반골세트 등 7종을 준비하여 5~25만원대에 판매할 계획이며 대기업 추석명절 선물용으로 사용되도록 홍보할 예정이며, 100대 기업을 선정해 암소 소비촉진 MOU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한우할인판매안내

대형유통매장

업체명	행사기간	행 사 내 용
농협유통 (56개점)	7.5~8.19 (46일간)	● 암소 한마리 할인행사(구이:32%, 정육:35.7% 할인) ● 영양만점 한우사골, 꼬리, 우족 할인전 -사골,꼬리 12,800원(50.4%), 우족 14,800원(50.3%) ● 한우불고기 -페스티벌, 구이용 할인모음전 -불고기 100g 3,580원 → 2,480원(30.7%) ● 한우사골곰탕(800g) 증정행사
AK플라자 (1개점)	7.27~8.23 분당점	● 유명산지 암소한우 산지직송전 -양평개군한우, 황성한우 등 25두 소진목표 ● 1+등급 등심 100g 13,500원 → 9,500원(30%) ● 1+등급 양지 100g 7,000원 → 4,900원(30%) ● 1+등급 불고기 100g 4,500원 → 3,200원(29%)
GS리테일 (241개점)	7.6~8.3	● 한우암소 구이, 불고기, 국거리, 부산물 할인행사 ● 1등급 구이용 100g → 원(%) ● 1등급 불고기,국거리 100g → 1,980원(%) ● 한우부산물 100g 원 → 1,280원(%)
홈플러스 (130개점)	6.28~7.18	● 한우암소, 한우사골 기획행사 -1등급 등심 100g 6,980원 → 4,880원(30%) -1등급 불고기 100g 3,980원 → 2,780원(30%) -한우사골 100g 2,380원 → 1,000원(58%) ● 한우곰거리 기획행사(33~55%) -우족(1,480원), 잡뼈(350원), 양지(3,980원)
현대백화점 (12개점)	6.29~7.15 (17일간)	● 암소 1등급 주요부위 30%, 부산물 50% 특가행사 ● 1등급 등심 100g 12,000원 → 8,400원(30%) ● 1등급 정육 100g 3,500원 → 2,400원(31.4%) ● 1등급 양지 100g 6,000원 → 4,000원(33.3%) ● 한우 2만원이상 구매고객 대상 증정행사
신세계 백화점 (7개점)	7.6~7.9(3일간)	● 암소 1등급 인기부위, 한우부산물 30~50%이상 할인 ● 1등급 등심 100g 10,500원 → 6,900원(30%) ● 1등급 국거리 100g 4,500원 → 2,180원(55%) ● 암소사골 100g 2,200원 → 1,100원(50%) ● 5만원이상 구매고객 한우불고기 300g 증정(지원)
롯데슈퍼 (595개점)	6.27~7.3(7일간) 7.11~7.17(7일간)	● 한우암소 국거리, 불고기 할인행사 ● 1등급 국거리,불고기 100g 3,480원 → 1,980원(43%) ● 한우사골 100g 1,980원 → 990원(50%)
롯데마트 (95개점)	6.28~7.4(7일간)	● 한우암소 국거리, 불고기 초특가 기획 ● 1등급 국거리 100g 3,300원 → 2,200원(24%) ● 1등급 불고기 100g 3,300원 → 2,200원(33%)

시·군암소할인판매장 안내

도명	지역명	매장명	대표자	행사기간
충북	제천	청풍로 청정한우	이애자	7.16~7.30
	제천	덧골한우	박복숙	7.16~7.30
	제천	명균유통 판매장	신현준	7.16~7.30
	음성	친환경 한우 암소판매장	유영명	7.16~7.30
	옥천	향수한우 판매타운	한두환	7.16~7.30
	충주	충주한우플라자	김문흠	7.16~7.30
전북	정읍	칠보청정 한우	오정훈	7.20~9.20
		산외용두머리 한우타운	이종훈	7.20~9.20
		자기도축 할인판매	한양수	9.1~9.20
전남	여수	암소마을	김재용	6.25~9.20
	담양	한우명가	김일곤	6.29~9.20
	나주	청정한우 암소직매장	박기태	7.14~7.31
	나주	나주축산 한우암소직매장	정광석	6.25~8.31
경북	의성	서부 한우리 마늘소 영농조합	김홍길	6.25~7.13

한우사골로 삼복더위 날리세요



한우자조금은 삼복 시즌을 맞아 전통보양식인 한우사골곰탕 소비촉진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복날, 고수들은 한우사골곰탕'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우 114(www.hanwoo114.co.kr)'를 통해 응모가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한우사골세트와 한우버거세트를 증정한다. 또한 한우자조금은 지난 16일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한우사골 포토행사를 진행해 다양한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한우사골의 영양학적 가치와 우수성을 홍보했다.

어르신, 한우국밥 드시고 건강하게 여름 나세요

사랑의 한우국밥 나눔행사 진행, 4만5천인분 전달계획



한우자조금과 한우협회는 온정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사랑의 한우국밥 나눔행사’를 사랑의 밥차와 함께 지난 29일 서울 상도동에 위치한 청운종합복지원에서 진행했다. ‘사랑의 한우국밥 나눔행사’는 한우자조금을 통해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에게 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공헌 사업으로서, 첫 번째 나눔으로 무더운 여름에 지친 어르신들의 기운을 복돋아 주기 위해 청운종합복지원 어르신들에게 한우국밥과 불고기 400인분을 전달했다. 강성기 관리위원장은 “한우농가들의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고 행사 취지를 설명하고 “수입쇠고기 공급과잉과 사료값 상승으로 한우농가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여름철 건강보양식으로 한우를 많이 사랑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에 대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한을 통해 “한우자조금의 특색있는 사회나눔활동이 인상적이다. 언제나 응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한편 ‘사랑의 한우국밥 나눔행사’를 연말까지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에 4만5천인분의 한우국밥을 전달할 계획이며, 나눔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무료급식소나 사회복지단체 등은 전국한우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한우자조금, 런던올림픽 이벤트 ‘한우 덕에 런던가자’ 개최

한우 서포터즈 7명 선발하여 항공권, 숙박권, 경기관람권 등 일체 경비 제공



한우자조금은 2012런던올림픽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기 위한 ‘한우 덕에 런던가자’ 이벤트를 펼쳤다.

‘한우 덕에 런던가자’는 런던올림픽 현지에서 응원도 하고, 세계인들에게 한우를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한우 서포터즈를 모집하는 이벤트로써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한우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모집 인원은 퍼포먼스 분야 5명과 SNS 홍보분야 2명 등 총 7명. 퍼포먼스 분야의 지원자는 춤, 노래, 개인기 등 자신만의 끼를 보여줄 수 있는 UCC 또는 사진을, SNS 홍보 분야 지원자는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주소와 함께 SNS를 활용한 홍보 아이디어를 각각 ‘한우114’ 홈페이지(www.hanwoo114.co.kr)에 게재하도록 했다.

강성기 위원장은 “한우 서포터즈가 대한민국 선수단 현지 응원은 물론 런던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서포터즈 활동을 계기로 한우가 한식의 한류바람을 일으키는 대표음식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종 선발된 서포터즈 7명에게는 런던올림픽 경기관람을 포함한 항공권 및 숙박권 일체가 제공되며, 선발되지 못한 이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롯데리아 한우버거세트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안전한 우리한우, 믿고 드세요

무더위 이기는 청소년 한우 맛체험, 전국적으로 활발히 진행



6. 18 수초초(충남 공주)



6. 19 첨단고(전남 광주)



6. 20 해남고(전남 해남)



6. 21 당진정보고(충남 당진)



6. 21 마산제일여중,고(경남 창원)



6. 22 화촌초(강원 홍천)



6. 29 인제초(강원 인제)



7. 05 성환초(충남 천안)



7. 13 관저고(충남 대전)

한우 수급 동향과 전망



6월 한우 사육두수 전년보다 2.7% 증가, 9월 또한 전년보다 다소 증가 전망

송아지 생산두수가 증가하여 6월 한우 사육두수는 3월보다 증가하고, 전년 동월보다도 1.8% 증가한 311만 두였으며, 한우는 298만 두로 전년보다 2.7% 증가했다. 9월 한우 사육두수는 전년 304만 두보다 다소 증가한 305~308만두, 그 중 한우 사육두수는 290~295만두 수준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발표치 기준).

1~6월 한우 등급판정두수 25.8% 증가, 8월 도축 전년보다 증가, 수입 감소 전망

적극적인 소비 홍보와 할인행사 등으로 한우 소비가 증가하여 1~6월 한우 등급판정두수는 전년 동기 간보다 25.8% 증가한 38만8천두였다. 이중 암소 도축두수는 전년대비 52.4% 증가한 18만4천두, 거세우는 전년과 비슷한 17만두였다. 수입쇠고기 소비 감소로 1~6월 수입량은 전년보다 20.9% 감소한 12만 1천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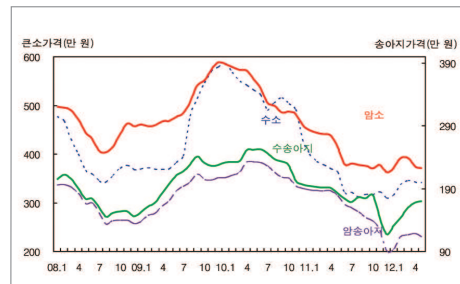
사육두수 증가로 8월 등급판정두수는 전년(5만8천두)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육 재고가 증가하여 8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월(2만6천톤)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8월 도매가격 약세 지속 전망, 추석 이후 가격 약세 대비 노력 필요

연초에 상승세를 유지하던 소 산지가격은 7월 들어 6월보다 더 하락하고 있다. 7월 12일 현재 암송아지 가격(6~7개월령 기준)은 118만 원, 수송아지 가격은 179만 원에서 형성되었다. 번식의향이 낮아 암송아지 가격 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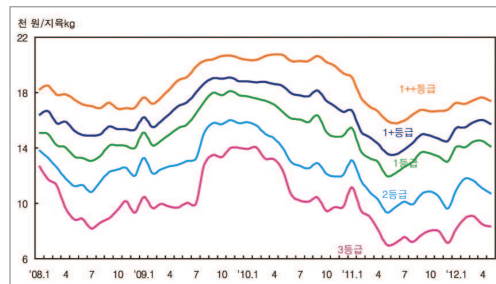
7월(1~12일) 한우 1등급 도매가격 13,441원(지육kg)은 전년 12,648원보다 6.3% 높지만, 평년 14,391원보다는 6.6% 하락한 수준이다. 여름철 쇠고기 비수기에 따른 수요 감소로 8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7월보다 하락한 12,500~13,500원으로 전망된다. 당분간 추석 직전까지는 한우 가격 약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 촉진행사의 성과와 암소 감축 정도에 따라 가격 등락폭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한우 산지가격(우시장) 동향



자료 : 농협중앙회

등급별 도매시장 가격 동향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한우소식 이모저모

휴가철... 가축방역 뚝릴라

해외관광 급증... 구제역·시 유입 우려 높아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등에 따르면 구제역이 발생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는 중국·대만 등 아시아 지역에서만 33개국에 달하며 전세계적으로 무려 72개국에 이른다. 문제는 이들 국가로 여행을 하다 자칫 구제역과 A바이러스를 국내로 옮겨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구제역 등의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통상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에 준하는 강도 높은 방역활동에 들어갔다.

방역당국은 우선 공항 입국장에 발판 소독조를 늘리고, 중국·홍콩 노선에 대한 검역탐지견 투입을 현재 18편에서 24편으로 강화해 햄·소시지·육포 등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또 항만 특별 점검에 나서고 24개반 72명으로 구성된 중앙기동 점검반을 가동해 가금류 사육농가의 소독실태, 도축장 등 관련업체의 소독 실시여부, 지자체의 차단 방역 실태 등을 꼼꼼히 점검기로 했다.

농협도 전국 117개 축협에 구성된 가축공동방제단에 500억원을 지원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축사주변 소독과 예찰 활동을 강화하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특별 방역교육도 펼치고 있다.

한우능력평가대회 출품자격 대폭 강화

종개협, 17회 대회부터 송아지 자가생산 농가만 참여 허용

‘제17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부터는 송아지를 자가생산한 농가에 대해서만 출품이 가능토록 출품자격이 대폭 강화됐다.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용)는 지난 10일 제15회, 16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참여농가 총회를 열고 대회 위상강화와 참여농가 확대에 따른 경매단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17회 한우능력평가대회 출품신청 기준을 강화하고 16회 친자확인 5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그동안 출품신청은 관내지역에서 생산된 송아지면 가능했던 것을 17회 대회부터는 송아지를 자가 생산한 경우에만 출품토록 하고, 단 브랜드와 단체 단위로 출품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내에서 생산된 송아지라면 자가 생산여부에 관계없이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입식조사 후 확인했던 친자확인 결과를 17회부터는 사전 확인 후 신청토록 하여 앞으로 출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종축개량협회 친자확인사업을 거쳐야 한다.

애독자 코너

한우자조금은 이번달부터 ‘알면 알수록 한우’라는 주제로 TV, 라디오 광고를 활발하게 진행합니다. 이번 광고는 한우의 120가지 부위에 따른 맛과 건강을 컨셉으로 하여 몸보신이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한우우족탕, 활력이 필요한 직장인에게 한우육회 등 다양한 한우의 요리와 영양가를 소개합니다. **한편 이번 한우자조금 홍보대사로는 슈퍼알파걸 이미지로 드라마에 출연 중인 탤런트 000를 발탁해 한우CF를 제작했습니다. 2012년 한우자조금 홍보대사로 위촉된 탤런트는 누구일까요?** 한우자조금 소식지 7월호 5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우편엽서 접수도 가능하오니 아래 접수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전화번호도 같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게재하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송아지 설사예방약을 드립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www.ihanwoo.org

우편엽서 접수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소식지 담당자 앞

당첨자

6월호 정답자분들! 축하드립니다!

강은재(전남 장흥군), 강혜선(서울 구로구), 이정우(경북 청도군), 손인성(충남 서산시), 이현길(경북 안동시), 정문재(전남 여수시)

한우 음식점 소개

안성마춤
한우명품관

전화 : 031-656-5285
주소 : 경기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168-1

안성마춤 한우명품관은 사육농가 조직인 안성마춤한우회와 농촌진흥청의 지역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우명품화 사업에 의해 이루어진 안성마춤한우 전문매장이다. 엄선된 식재료를 고집하며 최고의 맛과 질로 서비스하겠다는 뜨거운 의지 표명과 함께 고객을 모시고 있다. 꽃등심, 갈비, 생고기 등의 메뉴가 있으며 명품단감에 곁들인 건물과 인력한인 테리어가 명품의 맛, 한우와 잘 어울린 곳이다.

한우자조금 등록번호 114-02-01108

비매품 제8권 제31호 통권 제81호 발행일 2012년 7월 25일 발행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60 커피아회관 3층 TEL. (02)522-4292~3 FAX. (02)522-3605 발행처 전국한우협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TEL. (02)525-1053 FAX. (02)525-1054 편집·인쇄 탐미디어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기사와 사진, 그림 등은 무단으로 복제·전재할 수 없습니다.

한우 가격의 빠른 회복을 위해 암소감축이 필요합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우수형질 선별 등 개량이 더욱 필요합니다.

우량한 한우 사육마리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능력우 도태를 통한 감축이 필요합니다.



약정 맺은 암소는 분산 출하하고, 가급적 추석 전에 출하물량을 늘려 한우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합니다.

• 계약한 암소 중 10월 이후 출하예정 마리수 : 5만여 마리(전체의 62% 수준)



한우가격 회복을 위해 공급감소와 소비확대가 필요합니다.

• 한우고기 소비촉진만으로는 현재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국내산 쇠고기 소비 평균 증가율('02~'11) : 4.4%

– 한·육우 사육마리수 평균 증가율('02~'11) : 8.5%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www.hanwooboard.or.kr